2026 년 8 월 20 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순대외금융자산 급감, 평가효과에 주목

2026 년 2 분기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은 640 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6,895 억 달러 감소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24 년 말 처음으로 1 조달러를 넘어섰으나, 2025 년말 8 천억달러로 낮아진 이후 2026 년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다만 최근 감소는 해외자산의 축소나 대외차입 증가보다는 국내외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평가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대외건전성 악화로 단순 해석하기는 어렵다.

순대외금융자산 감소의 핵심은 대외금융자산의 감소가 아니라 대외금융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한 데 있다. 2 분기 말 대외금융자산은 3 조 843 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3 조 202 억달러로 전분기보다 8,912 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국내 증시 강세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지분증권의 평가액이 8,481 억달러로 크게 늘어나면서 대외금융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2 분기 코스피가 1 분기 말 대비 68%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순대외금융자산 감소에는 실제 외국인 자금 유입보다는 기존 외국인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투자대조표의 변동은 실제 자금 이동에 따른 거래요인과 주가, 환율 등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비거래요인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증권투자로 이어지면서 대외금융자산과 순대외금융자산이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 분기에는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것이 대외금융부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실제 자금 흐름보다 국내외 자산가격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순대외금융자산 변화를 좌우하는 정도가 커졌다.

따라서 최근 순대외금융자산 감소를 곧바로 대외건전성 악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만기나 원금 상환 의무가 없는 만큼 단기외채와 성격이 다르며, 주가가 하락하면 평가액이 낮아지면서 대외금융부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결국 최근 순대외금융자산 감소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상승한 결과라는 측면이 크다. 반대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별다른 자금 이동이 없어도 순대외금융자산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지표의 증감 자체보다는 실제 자금의 유출입과 외화 유동성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순대외금융자산 감소가 갖는 잠재적인 부담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국내 지분 보유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 배당 지급 등을 통한 본원소득수지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가 하락은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을 낮춰 대외금융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 증시 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실제 자금 이탈이 동반될 경우에는 달러 수요 증가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